

國際食糧政策研究所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具 千 書

責任研究員, 生産經濟研究室

位置 : 1776,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USA

國際食糧政策研究所(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는 食糧政策—生産, 貿易, 分配政策—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諸般指針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책실무자 또는 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研究所는 政策問題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民間財團에서 資金을 대고 있어서 정치적 입김이 비교적 적은 것이 하나의 特徵이라 하겠다.

1. 設立背景

食糧不足이 한참 문제가 되었던 1973년 1월 國際農業研究諮問團(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소속 技術諮問委員會(Technical Advisory Committee; TAC)는 UN 및 FAO 직원들 그리고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社會科學者들과 會議를 가졌다. 이 會議에서 食糧의 生産·貿易·分配 政策에 관한 세계적인 차원의 研究와 그 活用이 논의되었다.

農業部門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研究結果가

公共政策에 반영되자면, 그 研究報告書가 政策參與者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 요약되어야 한다.

政策의 決定過程에서 農業研究 結果가 빈번히 잘못 응용되고 있지만 學者들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또 연구를 시작할 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또 農民들이 研究結果를 채택, 이용하는데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政府의 政策은 그 結果의 채택 여부에 관한 農민의 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研究結果는 政策樹立家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 TAC는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研究機關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견해가 美國國際開發處(USAID)가 주최한 회의에서도 제기되었다. 이 회의에서도 각국이 따로 따로 食糧問題를 研究·分析하는 것은, 임무가 중복되고 비용도 과다해지므로, “農業 및 食糧政策에 관한 研究를 세계적인 규모로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그 結果를 고루 전달해 줄 수 있는 研究機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TAC는 이러한 研究機關의 設立을 CGIAR에게 중용하였고, 드디어 1975년 3월에 國際食糧政策研究所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資金은 캐나다國際開發研究所(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Canada), 포드財團, 록펠러財團에서 우선 대기로 약속하였다.

2. 研究課題 및 事業

IFPRI는 食糧의 生産, 貿易, 分配 및 그 政策方向에 關하여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關聯統計의 蒐集, 整理, 情報서비스, 出版 등의 附帶業務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비록, 規模가 아직은 크지 않지만 이 研究所는 ①세계적인 食糧과 農業問題를 재검토하고, ②國際問題와 關聯된 主要政策問題를 分析하고, ③특히 食糧開發途上國과 직접 關聯된 특정 食糧政策問題들을 추려내어 어느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를 검토·분석하며, ④同研究所의 所管研究分野에 關한 知識의 蓄積, 아이디어의 交換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14個國 사람들로 구성된 21명(이 중에서 15명이 開發途上國 출신)의 責任級의 研究陣과 이들의 業務方向을 決定하는 14명의 理事가 主軸이 되어 일하고 있다. 理事는 出身國이 다양하여 10個國 사람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7명이 開發途上國 출신이다.

이와 같이 開發途上國 出身者를 많이 기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研究所의 研究結果가 특히 이들 第3世界의 政策樹立家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研究所가 重點을 두고 있는 研究課題는 ①開發途上國에 있어서 어떻게 食糧生産을 增大시킬 수 있을 것인가, ②이들 나라에서 食品섭취 및 營養의 向上方案은 무엇인가, ③필요한 食糧援助의 量과 援助效果의 增大方案, ④食糧事情의 安定化, ⑤세계적으로 소요되는 食糧을 마찰없이 調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世界貿易效率의 增大方案에 關한 問題들이다. 이와 같은 研究는 독자적인 힘만 가지고는 곤란하므로 IFPRI는 UN組織과 相互補完의인 協助關係를 樹立하고 있

다.

3. 研究成果와 推進事業

이 研究所는 行政的인 편의를 위하여 크게 4개 部門으로 나누어 研究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즉 ①動向分析, ②生産政策, ③消費政策 및 ④貿易政策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研究를 수행하다 보면 각 연구과제가 서로 關聯되거나 중첩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食糧問題에 關한 綜合的인 研究가 요구되는 것이다.

動向分析研究

IFPRI는 장래의 食糧生産量과 所要量을 추정·비교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食糧問題의 所在 및 程度를 예측하고 있다. 여기서 얻어진 研究結果는 世界食糧理事會(World Food Conference), 世界銀行 및 FAO 등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研究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資料로 이용되고 있다.

IFPRI는 1976년에 “發展하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필요한 食糧의 調達——다음 10年間의 問題發生地域과 그 規模”란 題下의 研究報告書를 냈다. 이 報告書는 1985년 開發途上市場經濟國(Developing Market Economy; DME)에 있어서 食糧問題의 所在와 그 때에 가서 發生할 것으로 예견되는 食糧不足의 規模를 연구한 것이다. 이 報告書는 DME 國家에 있어서 食糧不足의 現趨勢가 계속될 것으로 假定하고 1985/86년에 약 1億%의 穀類가 부족될 것으로 推定하였는데, 이는 1974/75년 世界食糧波動 당시 規模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DME 人口의 60%가 食糧이 不足하고 인구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地域에 살고 있는데, 이 地域에 속하는 나라는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으로서 1972년 1人當 國民所得이 200달러 미만이었다.

1977년에 IFPRI는 앞의 研究를 확대 “開發途上國의 食糧所要—1990년의 生産과 消費推定”이란 第2次 報告書를 냈다. 이 報告書는 전에 다루지 않았던 薯類, 豆類 및 落花生과 기타 雜穀類를 포함하고 있다.

이, 研究는 82個의 DME 國家에 필요한 食糧의 推定 消費量과 國別生産動向을 根據로, 1990년에 가서는 所得이 서서히 增大된다는 假定 밑에서는 120百萬%이 不足되고, 所得이 빠르게 增大한다는 假定 아래서는 145百萬%의 主要食糧이 不足하게 될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推定結果는 특히 아시아와 사하라以南 아프리카 地域에 있는 所得이 낮고, 食량이 부족되는 나라의 앞날에 暗雲이 깃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所得이 낮고 食량이 부족한 低開發國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總칼로리 不足現象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食糧生産이 급속히 增大되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들은 基本食糧의 所要量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마도 食糧援助의 형태로 많은 食糧을 輸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밖에 動向分析部分의 중요한 研究로서 “Production Trends in Selected Rapid-Growth Developing Countries”와 “Comparative Study of FAO and USDA Food Production Data”가 있다.

이 部門에 관한 앞으로의 研究計劃 중 特記할 것으로는 資料分析에 世界穀物生産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中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推定에서 빠졌던 바나나類와 雪糖類를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食糧研究를 하는데 있어 總칼로리 攝取量의 80~90%를 카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生産政策研究

IFPRI의 生産政策 研究分野에는 3개의 重點 研究部分이 있다. 첫째는 研究資源의 配分에 관한 것으로, 이 분야의 새로운 研究結果가 장래의 食糧生産增大에 특히 重要한 役割을 다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둘째는 投資需要와 效率에 관한 것으로, 특히 灌溉問題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세째는 肥料政策에 관한 것으로, 비록 새로운 技術이 없더라도 肥料의 增投를 통하여 生産을 增大시킬 수 있는데다가, 이것이 營農資金 중에서 매우 重要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生産政策分野 研究實績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 보면 ① 農業研究에 대한 資源의 配分 및 國際的인 研究의 優先順位, ② 國立研究組織의 強化, ③ 投資需要, ④ 東아프리카 諸國에 대한 食糧作物과 換金作物間의 經濟的 代替問題와 適正食糧政策의 選擇問題 등이 있다. 또한 ‘아시아의 米穀政策研究’와 함께 ‘生産政策 및 貿易政策에 關한 研究’가 다른 國際研究機關과의 協助下에 이루어지고 있다.

消費政策研究

이 研究所에서 취급하려는 消費政策分野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래서 첫 2個年間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食糧分配 分野를 집중적으로 研究하였다.

(1) 食糧이 모자라고, 그로 말미암아 營養不足現象이 일어나는 地域에 대하여 量的으로 把握하기 위한 研究方法 開發.

(2) 여러 階層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이한 食糧調達 問題와, 이에 대하여 政府가 關與했을 때 파생될 것으로 보이는 諸問題에 대한 評價.

(3) 農業開發戰略과 政策의 結果에 따른 分配問題에 대한 評價.

(4) 食糧消費分配의 側面에서 본 食糧援助의 충격에 關한 研究.

현재까지 이 部門에 대한 研究結果를 통해서, 食糧의 配給이 확실히 食糧消費水準을 向上시키는데 매우 重要한 功獻을 할 수 있겠지만, 그 效率이 낮으며 費用도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消費政策分野에 關한 研究 중에서 이미 실시한 重要한 研究들은 다음과 같다.

(1) 방글라데시의 食糧政策構造.

(2) Kerala의 營養不足을 메우기 위한 食糧消費補助가 派生시키는 諸問題.

(3) 北東 브라질에 있어서의 最低價格政策과 貯藏政策.

앞으로는 방글라데시, 인도 및 스리랑카에서 실시되고 있는, 食糧配給制度的 效果에 대한 比較研究를 할 예정이다.

貿易政策研究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은 점점 더 輸入穀物에 依存하고 있으며, 依存關係는 앞으로 10年間에도 계속 增大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적인 需給變化로부터 國內食糧市場을 保護하기 위한 貿易政策과 氣候變化 등으로 인한 食糧에 대한 不安의 增大는 價格과 供給의 變化幅을 확대시키고 있다.

穀物市場의 價格安定을 위한 國際協助, 貿易自由化, 輸出農産物을 위한 市場安定對策 등을 포함하는 수많은 국제적인 政策問題에 관하여 UNCTAD/GATT 管掌下에 協議가 進行되고 있다.

따라서 貿易政策에 관한 研究는 현재 緊急을 요하는 것과, 以上에 열거한 問題와 직접 관련된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데 그 內容을 간추려 보면,

(1) 開發途上國의 農産物輸出展望,

(2) 食糧安保,

(3) 食糧援助研究,

(4) 商品市場分析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는 '國際商品構造'와 '國際貿易政策에 관한 研究'에 重點이 주어질 것이며, 특히 ASEAN諸國의 米穀에 관한 國際貿易政策 및 이의 世界貿易과의 相互關聯性에 대하여 重點이 주어질 것이다.

農業開發戰略研究

이 部分에서 현재 重點的으로 研究되고 있는 分野는 '農業成長과 經濟成長' 및 '農業部門에 있어서 政府支出'에 관한 것이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대다수의 人口가 農村에 居住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諸國의 經濟發展은 農業發展이 先行條件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農業發展은 農業政策이 合理的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IFPRI에서는 한 國家가 發展함에 따라서 農業과 其他 經濟가 어떠한 關係를 갖는가 하는 것을 實證的으로 규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